● 타운뉴스 칼럼

버리기

안창해
타운뉴스 발행인

크리스마스 무렵 집에 온 딸이 해가 바뀌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안 정리를 하겠다며 이 방 저 방에서 버릴 것을 골라 놓기 시작했다.

딸은 내가 사용하는 물건도 정리하자면서 나에게 이거 버려도 괜찮냐? 이걸 더 입으려고 하느냐? 물어가며 버릴 것을 골라내고, 옷들은 종류 별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양복은 양복대로 재킷은 재킷대로 와이셔츠, 넥타이, 티셔츠, 혁대, 모두 한곳으로 모아서 가지런히 정렬해 놓았다. 그리고 버릴 옷들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릴 것이 아니라 헌옷을 파는 곳에 갖다 주자고 했다. 그곳에서는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해 거둔 수익금을 어려운 사람 돕는 일에 쓴다고도 했다.

반나절을 정리하더니 큰 박스로 여섯 박스 이상을 모아 놓았다. 차를 마시며 잠시 쉬고 난 딸은 책장 안에 꼽아둔 채로 있는 책들도 버리라고 했다. 읽지도 않는 책을 왜 이리 많이 모셔 두고 있냐고 했다. 잠시 망설였다.

중학교에 입학하던 해 어머니께서 큰맘 먹고 사주셨던 한국 문학 전집, 교사 시절 누군가의 부탁으로 들여놓고 다달이 부었던 31권짜리 동아대백과사전, 미국에 오기 전에 작가로부터 직접 받은 대하소설 태백산맥, 아이들 어려서 사주었던 세계 동화 전집, 위인전 같은 전집류부터 각종 인문학 서적, 소설책 등, 마지막으로 꺼내 읽은 적이 언제인지 모르는 책들이 대부분이었다. 아깝긴 하지만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럼에도 야마오카 소하치의 대하소설 '대망(大望)' 속편, 조정래의 '태백산맥' , 이문열의 '초한지' 는 결국 버리지 못했다. 태백산맥은 10권 중 3권이 없었지만 버릴 수 없었다. 누군가가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은 모양이다.

특히 '대망' 속편 12권은 사연이 담긴 책이다. 대학에 입학하던 해, 학교 도서관에서 대망을 빌려다 읽기 시작했다. 1권부터 20권까지 다 읽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박정희에 의해 유신이 선포되고, 유신 반대 데모가 한참이던 때였다. 책 속에 빠져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신문을 읽다가 대망 속편 12권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바로 대학 도서관에 책을 구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서관 직원은 기다리라고 했다. 두어 달 기다렸으나 도서관에 책이 들어오지 않았다.

책을 직접 구입해 읽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수중에 그렇게 큰돈이 있을 턱이 없었다. 돈을 마련하기로 했다. 당시는 수유동 일대에 주택 건설이 한창일 때였는데 동네 친구 중에 타일 붙이는 일을 하는 H라는 친구가 있었다. H에게 일을 하겠다고 하니 자기 형 Y를 소개해주었다. 그 형이 타일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감을 가져다주었는데 나를 자기 동생 데모도(보조)로 붙여 주었다. 짐을 옮기거나 시멘트, 모래 등을 타일 작업을 하는 친구에게 옮겨다 주는 아주 단순한 일이었다.

그렇게 일주일 일했으나 그 대가로 받은 돈으로는 책을 사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결국 Y 형에게 부탁했다. 내가 책을 사려고 하려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하다. 돈 좀 빌려 달라.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갚겠다.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번 돈과 Y가 빌려준 돈으로 산 책이 바로 '대망' 속편이다.

H와 Y를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만났을 거다. 그러나 Y는 내게 돈을 돌려 달라고 하지 않았다. 돈벌이를 시작한 뒤로는 그를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도 갚지 못하고 있다.

책장에 꽂혀 있는 대망 속편 12권을 볼 때마다 50여 년 전의 그때가 마치 엊그제 일처럼 뚜렷하게 떠오른다. H, Y 형제를 한 번 만나고 싶다. 빌린 돈도 갚고, 맛있는 식사도 대접하고 싶다.

감상에 빠져있는 동안 딸은 버릴 책들을 박스에 차곡차곡 정리해 담아 놓았다. 온 집안 구석구석을 깨끗이 정리한 후, 헌옷 파는 가게 앞에는 헌옷을, 도서관 앞에는 책을 쌓아 놓고 돌아왔다. 새해 벽두에 딸과 함께 온 집안을 정리하고 나니 묵은 체증이 내려간 듯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딸과 함께 정리를 하면서 깨달았다. 정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일이 아니다. 나의 과거를 정리하며, 현재의 상태를 돌아보는 일이다.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 이다. 물건을 버리지 않고 자리만 바꿔주는 것은 정리가 아니다. 일본의 수납정리 전문가 곤도 마리에도 말했다. "정리의 첫 번째는 물건을 버릴지 남길지 결정하는 일이다. 그 다음에 남은 물건 둘 곳을 정하면 된다."

딸이 떠나는 날, 공항에 내려주고 오면서 발 디딜 틈 없이 난장판이었던 딸의 어릴 적 방이 떠올라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chahn@townnewsusa.com

타운뉴스

제 1402 목차

TownNews QR Code

타운뉴스 칼럼 11
커뮤니티 소식 13, 15
세상에 이런 일이 23
나는야 1.5세 아줌마 16
법률 19
여행 21
전문인 칼럼 24,25,26
숨은그림 찾기,답/낱말 퀴즈,답 26/46,26/45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곳 25
건강 37
깔깔 34
부동산/경제 35
한인업소 안내지도 40,42,52,54,56
요리 41
그림여행 43
종교 46
연예 45,47
안내광고 48,49
Domestic/ 주간운세 50
여성 51,53

가주장의사
매장·화장·묘지주선·이장·장례보험등
● 넓은 주차장 ● 교통 편리 (LA, OC-20분)
● 저렴한 비용으로 봉사하여 드립니다.
24시간 TEL
대표: 정 영 목 목사
9830 Lakewood Blvd., Downey, CA 90240
(562)622-9393

타운뉴스® 배포지역
· 로스엔젤레스, 세리토스, 아테시아
· 다이아몬드 바 등 LA 동부
· 하시엔다, 로랜하이츠
· 오렌지카운티 전지역
광고문의 562.404.0027
info@townnewsusa.com
www.townnewsusa.com

Keon-Jung Kim Dental Corp.
IMPLANT, COSMETIC, ORTHODONTIC
& LASER DENTISTRY ORAL SURGERY
www.timkimdental.com
터스틴 김건중 종합치과
36년 임상경험의 치아이식 전문의 및
5명의 각 치과 전문의와 함께 모든 치과진료를
한곳에서 받을수 있는 종합치과
Our clinic is DISINFECTED and SAFE to VISIT
일반 · 미용치과 전문
Hara Jeon, DDS, MS, Ph.D
Jeong Eun Kim, DDS
Soyoun Jenny Min, DDS
Maria Capiral, DDS
교정치과 전문
Jin Kim, DDS, MS
Columbia 명문대 졸업
미국 board certified orthodontist
(미국 교정치과 보드 전문의)
임프란트/구강외과 전문
Timothy Kim, DDS, MS, Ph.D
Medicare B plan (PPO) provider
Health care(PPO) 취급하여
→ 뼈이식과 Implant 할인 혜택 가능
▪ 3차원 CT 촬영으로 정확한 진단과 수술
▪ Surgical Microscope을 이용한 섬세한 외과수술 및 동영상 촬영
▪ 레이저를 통한 무마취 · 무출혈 · 무통 잇몸치료
Address 2492 Walnut Ave. #200, Tustin, CA 92780
tel. 714-760-4988 949-679-6000
(San Diego) 760-757-9876 760-479-9876
55 Cross Road Church Tustin Ranch Rd. Yedang Korean Restaurant Franklin Ave. Walnut Ave 405 Jamboree Rd 5
NEW LOCATION TO BETTER SERVE YOUR DENTAL NEED
KEON-JUNG 'TIMOTHY' KIM
구강외과/치아이식 수술전문의 ORAL SURGERY
D.D.S., M.S.D., PH.D.
– 대한 구강악안면 외과 board certified specialist
– 인천 중앙 길병원 치과 구강외과 주임과장 역임
– 대한 구강악안면 성형재건외과학회 지도의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Postgraduate Fellow 역임
– LSU 치대 구강악안면외과 조교수 역임
– New Orleans Charity Hospital 구강외과, 치아이식과 임상과정
– 미 치아이식학회 (AAID, AO)회원
– ADA, CDA, OCDS, KADA 회원